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최다 사용처는 슈퍼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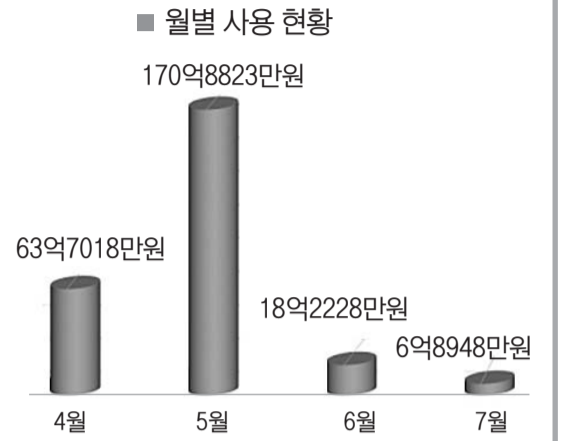
지원사업 4개월만에 마무리...카드 사용 260억원 1인 평균 9만9155원 5월에 87만5770건 사용 '최고'...슈퍼마켓·식당·병원·주유소 순 소비

군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시민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생계가 어려워지자 군산형 재난기본소

득 지원사업 도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달까지 10만원권 카드 총 26만 2768장을 시민에게 지급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군산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카드 사용은 지난달까지 총 이용금액 259억 7900만원, 1인 평균 9만9155원을 기록했다.
지급을 시작한 4월 25만7060건(63억7000만원), 5월에 87만5770건(170억8800만원)을 사용해 최고조에 달했다.
주로 사용된 곳은 슈퍼마켓 37.9%(98억5500만원), 식당 22.3%(57억9300만원), 병원(6.8%), 주유소(6.4%), 정육점(4.8%), 운동용품(3.3%), 의류(2.9%), 미용실(2.9%) 등이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2020년 3월30일 기준 군산 등록) 1230여명에 대해서도 9월까지 1인당 10만원의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추진했다"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철수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져 침체의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채계산 공중서 출렁출렁... 어서 와~ 이런 스틸 처음이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출렁다리 재개장...푸드트럭 등 먹거리 개선

순창군이 광주 등 인근지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채계산 출렁다리를 6일 부터 재개장한다.
순창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채계산 출렁다리는 길이 270m, 높이 75m의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로 지난 3월27일 개장했다.
이 곳은 주말이면 8000명에서 1만명 가까이 관광객이 찾는 등 현재까지 23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군은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순

창 내 유입을 우려해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을 지난달 4일 중단했다.
이후 최근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 2일 1단계로 전환되고, 확진자 확산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재개장을 결정했다.
순창군은 이번 재개장 시점에 맞춰 그간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먹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근 주차장에 푸드트럭 6대를 배치해 먹거리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순창을 대표하는 고추장을 테마로 정하고 고추장 떡갈비, 고추장 쿠키 등 총 20여개에 이르

는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순창군은 '고추장의 고장 순창'이라는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거리로 출렁다리 인근 논두렁 2만㎡에 '논 그림'을 만들었다. 해당 그림은 오색 벼를 심어 드넓은 황금 들녘을 헤엄치는 고래를 그려 넣은 것이 핵심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관광객은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출렁다리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면서 "군도 출렁다리 방역 활동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 용기·신기마을 등 5곳 '우수 녹색마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 캠페인 301개 마을 참여

고창군은 산림청이 불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실시한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 5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 심원면 용기마을 등 5개 마을이 산림청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선정됐다. <고창군>

산림청의 캠페인에는 301개 마을이 동참했다. 이 중 심원면 용기마을과 고수면 신기마을, 해리면 행산마을, 성송면 사나마을, 부안면 인촌마을이 우수마을로 뽑혔다.
선정된 5개 마을은 불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 전체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에 앞장섰다.
또 기동단속 시 불법 소각도 적발되지 않는 등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은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해 우수 녹색마을 현판을 수여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협력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 지속적으로 산불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KTX 익산역에 '무인 대출' 스마트도서관

익산시는 KTX 익산역 3층에 '익산역 365 스마트 도서관'을 마련, 지난 5일 공식 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서관은 500여권의 책을 비치하고 대출해주는 기능을 한다.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을 갖춰 24시간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책은 소독된다.

익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스마트 도서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의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적용한다"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익산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gadgethosp.co.kr

가제트병원

GADGET HOSPITAL

어깨/팔꿈치/손목/무릎 중점치료
인공관절, 체외충격파, 무릎줄기세포

☎ 062-710-9111
광주 남구 대남대로127번길 5(방림동)

www.godh.or.kr

광주병원

친절한미소 고객을 위한 실천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방사선과, 재활의학과, 치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39번길51(우암동)
(동광주IC 삼성출발점 맞은편)
대표전화: 260-7000 FAX: 260-7111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김재휴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godh.or.kr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우암의료재단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환 좋은 병원

광주씨티병원

씨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씨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
씨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062.604-5000

진료내용: 모발이식, 탈모치료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에피부과의원

130331-0-70266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
(세정아울렛 옆)
대표전화 062.223-5824